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용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정

오늘, 어린이·어버이주일(2·3부 가족연합예배)



지금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교전 10:16)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확실하게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어버이주일을 맞아 드리는 가족연합예배(2·3부)를 통하여 온 가족은 십자가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진실로 행복한 가정은 건강, 재산 등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고전 3:11). 참된 그리스도인(행 11:26)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가정만이 영원토록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일꾼이 되어 이웃과 온 땅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분명 예수의 흔적(갈 6:17)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은총을 풍성히 느끼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 6:10).

생명의 말씀(김요찬양집외) 약속에는 책임이 있으며 받아들이는 응답을 요구한다

있었고 또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어떤 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완전히 다르다.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약속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궁극적인 약속을 담고 있다(창 18:19). 따라서 구약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있던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어떤 약속이나 관계를 나타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내포하고 있다(마 1:1 : 갈 3:7-9, 14, 29).

예언이 있었으나 이 예언과 관계된 사람은 이를 알지도 못한 채 이루어질 수도 있다(사 45:4). 이는 고레스 왕에 관한 것이다. 고레스 왕이 여호와를 알았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고레스는 모든 일을 예언된 대로 다 이루었다(대하 36:22-23). 이스라엘과 관계된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그러나 고레스 자신은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 약속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정이 있음을 의미한다. 믿음과 행동이 없다면 그 약속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이 주어졌으며 또한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

과 순종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민 14:30, 32-33).

이와 같이 약속으로서의 구약은 두 가지 영향을 준다. 첫째,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관한 문제임을 깨닫게 도와준다. 구약에서는 율법에 근거하고 신약에서는 은혜에 근거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람을 부르시고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셨다. 둘째, 약속의 완성이 약속을 받은 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약속에는 조건이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자체를 신뢰하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요구를 망각하고 탄 길로 갈 때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신뢰를 여지없이 파멸시켰다(암 3:1-2, 5, 2; 9:7; 렘 7:4, 7, 9, 15). 예수님도 예레미야와 같은 투쟁을 하셨다(막 13:1-2 : 요 8:33, 37, 39, 41).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엄한 말로 경고한다(히 3:7-8, 11, 14).

하나님의 약속에는 영원성(히 10:19)이 있으며 이는 구원받은 소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과 또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함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면서 구약을 언급할 때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께서 완성하신다. 만일 구약을 단지 예언으로만 생각한다면 구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약을 선언하였었고 또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히 12:1-2).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과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마 16:24, 27). 아멘.

CLEAN FEET

⁽³⁾Jesus, knowing that the Father had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s, and that He had come forth from God and was going back to God, ⁽⁴⁾got up from supper, and laid aside His garments; and taking a towel, He girded Himself. ... ⁽¹⁶⁾“Truly, truly, I say to you, a slave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one who is sent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him.

⁽¹⁷⁾If you know these things, you are blessed if you do them.”

(John 13:3~17)

Jesus' time had come, "Now before the Feast of the Passover, Jesus knowing that His hour had come that He would depart out of this world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to the end"(Jn. 13:1). After roughly thirty-three and a half years of living as a human being it was time for Jesus to depart this earth. This was the time for which He was born. This was the time that the wickedness of humanity reached a climax. The plot for His betrayal was underway. Judas had decided to sell the Savior. His disciples would soon abandon Him. Jesus knew all these terrible things and more lay ahead, yet He still continued to love His disciples. During this painful and sad time He instructed His disciples on crucial issues, like forgiveness as described in today's Bible passage.

The Savior took a servant position, "Jesus, knowing that the Father had given all things into His hands, and that He had come forth from God and was going back to God, got up from supper, and laid aside His garments; and taking a towel, He girded Himself. Then He poured water into the basin, and began to wash the disciples' feet and to wipe them with the towel with which He was girded"(Jn. 13:3~5). Jesus didn't request the best treatment, but rather chose to serve while eating. He didn't act like a special guest. He acted like a servant by laying aside His garments and washing the disciple's feet. His position with God before coming to earth afforded Him all praise from the angels. He humbled Himself in leaving heaven to come to earth. He humbled Himself even more by coming to serve. At His last supper, He bent down to clean the feet of those He loved. He continues to wash away the filth of sin for those He loves, "Or do you not know that the unrighteou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fornicators, nor idolaters, nor adulterers, nor effeminate, nor homosexuals, nor thieves, nor the covetous, nor drunkards, nor revilers, nor swindlers,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Such were some of you; but you were washed, but you were sanctified, but you were justifi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in the Spirit of our God"(1 Cor. 6:9~11). What great love! The water symbolizes the Word of God, and only Jesus can administer its washing away of sin (Eph. 5:25~27). God's Word keeps us clean day by day.

Peter protested over Jesus cleaning His feet, "So He came to Simon Peter. He said to Him, 'Lord, do You wash my feet?'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What I do you do not realize now, but you will understand hereafter.' Peter said to Him, 'Never shall you wash my feet!' Jesus answered him, 'If I do not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Simon Peter said to Him, 'Lord, then wash not only my feet, but also my hands and my head.' Jesus said to him, 'He who has bathed needs only to wash his feet, but is completely clean; and you are clean, but not all of you.' For He knew the one who was betraying Him; for this reason He said, 'Not all of you are clean.'"(Jn. 13:6~11). Peter thought he could clean-up his own life. How often do we mistakenly think we know what we're doing? Trying to make things right on our own is a hopeless task. Peter soon learned how hopeless after he boasted in Christ and then flatly denied Him three times. The ritual of washing feet does not bring salvation, only Christ can cleanse sin. In today's world a lot of churches tell people that if they do this or that then their sins will be forgiven, but this is simply not true. We are washed at salvation, "He saved us, not on the basis of deeds which we have done in righteousness, but according to His mercy,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by the Holy Spirit"(Tit. 3:5). Salvation is God's gracious gift, not a reward earned by man for man's worthwhile acts. In our spiritual life as Christians our feet get dirty walking around, but we need only confess our sins to be entirely clean again.

The call to all is to have Jesus wash your feet, and the call to all believers is to wash one another's feet, "So when He had washed their feet, and taken His garments and reclined at the table again, He said to them, 'Do you know what I have done to you? You call Me Teacher and Lord; and you are right, for so I am. If I then, the Lord and the Teacher,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For I gave you an example that you also should do as I did to you. Truly, truly, I say to you, a slave is not greater than his master, nor is one who is sent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him. If you know these things, you are blessed if you do them'"(Jn. 13:12~17). As Christians, we ought to forgive each other. We ought to be humble. We ought to be very careful in applying the Bible to others. Are you like Jesus when it comes to washing another's feet or are you more concerned about impressing others? Do you take the time to help others keep their faith clean?

My dear friends, Jesus knew all the terrible things that His disciples and others were going to do to Him, yet He still loved them. Jesus is calling you to humble service. He is calling you to a clean walk in life. Only Jesus can keep us clean in this filthy world. Are you willing to serve like Jesus? Today is the fourth Sunday following Easter and I want to challenge you to keep Jesus' command to love and forgive others, just like He did. Amen. 

발을 씻기심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3~17)



김성관 목사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인간으로서 약 33년 6개월간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해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 때는 인간의 사악함이 절정에 이르렀던 시간으로 그를 배신하기 위한 음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구세주를 팔기로 결정했고,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버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끔찍한 모든 일을 아셨고 더 많은 일이 앞에 놓여 있음을 아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 중에도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기술된 용서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구세주가 종이 되다

구세주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요 13:3~5). 예수님은 최상의 대우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식사 때에 섬김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손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다. 예수님은 종처럼 자신의 겹옷을 벗어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 천사로부터 모든 찬양을 받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심으로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또 주님은 섬김심으로 더욱 낮아지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닌 죄의 더러움을 계속해서 씻어내어 주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남매를 사랑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전 6:9~11).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씻기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엡 5:25~27).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 줍니다.

베드로는 반대하였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려는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도 알지 못하니 이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

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요 13:6~11).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옳게 만들려는 시도는 가망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그리스도께 큰 소리를 친 후에 예수님을 단호하게 세 번 부인하고서야 알았습니다. 발을 씻기는 의식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이러저러한 일을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씻겨 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딤후 3:5).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지, 인간 자신의 공로로 얻는 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발은 이리저리 걸다 보면 더러워지겠지만,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시려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모든 신자들을 부르시어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나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 13:12~17).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남의 발을 씻어줄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데 더 집중하십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다른 이들이 믿음에 깨끗이 지키도록 도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자신에게 행할 모든 끔찍한 일들을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러 겸손히 섬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불러 정결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죄악 된 세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기꺼이 섬기길 원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 빔채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사랑과 용서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도전하길 원합니다. 아멘. ■

수요부애매 / 월요일새벽기도회

놀라운 축복
(야고보서 1:17)

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먼저 언급하였다. 욕심은 곧 자신의 욕망, 꿈, 자존심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1장 16절에서 간곡하게 호소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악한 마귀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 꿈과 야심으로 포장된 욕심(자존심)을 갖게 만든다. 이 욕심에 기초한 세상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게 한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놀라운 축복은 세상이 말하고, 공감하는 축복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 말할 수 없는 은사

놀라운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은사이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9:15). 은사는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거저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 은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다(고후 8:9). 성육신, 즉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말할 수 없는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영벌, 지옥을 피해 은사, 영생,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요 3:16).

● 말할 수 없는 말

놀라운 축복은 말할 수 없는 말이다.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때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긴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 돌을 던져 바울은 거의 죽게 되었다(행 14:19).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듯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고후 12:4).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표현할 수 없는 말은 천상의 언어였다. 그리고 이 말은 바울을 다시 살렸다. 이미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진 바울은 다시 일어났고, 다음날 복음을 전하려 터베로 갔다(행 14:20). 말할 수 없는 말은 영혼을 살려 복음을 전하게 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던 한 강도도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여 천국에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엡 4:8~10).

●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놀라운 축복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8~9).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절대로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주어지는 은혜이다. 이것을 얻는 자가 진실로 복되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벧전 1:11~12). 이것은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한 준비된 은총의 기뻐한 것이다(사 64:4).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항상 불평하였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출 33:3; 신 9:6, 13)이라고 진노하셨다.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과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놀라운 축복을 보지도, 듣지도, 생각할 수도 없다(고전 2:9).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의 축복을 얻으려고 고집부리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위선자가 되어 있지 않은가? 욕심(자존심)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영원한 사랑에 이르게 한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라. 말할 수 없는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참여하길 원한다. 놀라운 축복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메시아의 죽음 17

유다의 전 모습
(누가, 요한)

한편 대표적인 부류의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는 어리석음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음에도 백성을 두려워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 여하튼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안이 되어 있었다.

이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누가는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눅 22:3-6). 지금까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패적인 모습보다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기술만 보아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눅 22:21-23). 그러나 유다에 대한 설명은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자세히 기록하였다. 누가복음 22:3-6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유다는 사리분별에 뛰어났으며 정치적인 수완도 탁월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그의 종말은 비참했다. 누가는 자신이 쓴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서 이에 대해 밝혔다. "이 사람이 불의의 상으로 밭을 사고 후에 밭

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행 1:18).

요한은 유다가 배신을 결정한 시점에 대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기술하였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환자 사문의 집에 이른 시점이 유월절 이틀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막 14:1). 그러나 요한은 유월절 열세 전이라고 기록하였다(요 12:1).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와 같은 시간적 차이는 복음서 기자가 강조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향유를 부는 마리아에 대한 유다의 비난(막 14:3-11)과 관련하여 마가는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대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흠쳐 간지러라"(요 12:6)는 설명을 덧붙였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재정관리자로서 평소에도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마가 유다의 마음을 조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요 13:2). 이와 같이 요한은 곳곳에 유다가 문제가 있었으며, 예수님을 팔 자라는 사실을 설명하였다(요 6:70~71, 13:18~27).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배미러라"(요 13:30). 이것은 유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어둠으로 가득한 밤에 예수님을 떠나는 유다는 곧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가롯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한 유다의 초점은 세상에서의 영광이었을 뿐 십자가의 영광은 아니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다. 성공과 행복, 부와 명예를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자. 아멘.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시)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거부해도

처음에는 선교라는 것에 대해 조금은 거부감이 들었다. 그런데 이 소망문을 쓰고 있는 지금, 정말 이 사역이 나에게 주는 믿음을 조금 더 잘 알게 해 준 계기가 된 것 같다. 이번 선교는 나의 첫 번째 선교였다.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로 많이 어려웠다. 많이 부족한 까닭인지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은 거의 "아니오"였다. 그래서 그런지 나의 성격 때문에 짜증이 난 적도 많았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피해한다고,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말해야 하는 사이에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리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점도 많았다. 기도도 충분히 해야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돼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여기서 후회한 것을 열심히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경험은 정말로 좋은 것 같다. 나로 인해 구원 받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뿌듯한 기분이 들어 정말로 좋았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

주소영(종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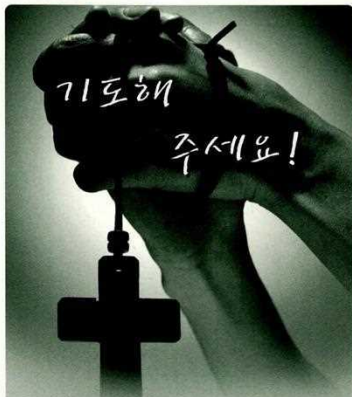
다른 때보다, 더욱 발걸음을 재촉하여 예배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예배, 그것만큼은 절대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더라도, 아침부터 비가 추적거렸지요. 참 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사랑의 이심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이야기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실재가 되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격으로 가득 찬 마음을 정돈하고, 제 시간에 자리에 앉아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당 앞, 중앙에는 새하얀 천이 덮은 주님의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잔치였습니다. 초대받을 수 없는 내가, 감히 이 성대한 만찬에 초청되어 앉아 있다니요. 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중 속 한 명일 뿐이었는데요. 그분에게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운 군병들 중 한 명이었는데, 아니 그날 내 삶 속에서만 찾아봐도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며 주님을 버린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수십 번, 수백, 수천 번 포기한 그런 나를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린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말씀과 찬양 또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난 아무 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이 그저 내 생한 심령, 선한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썩어 문드러진 마음, 내 모습 그대로 나 있을 뿐입니다.

병고도 마음속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를 대신해 이제 그 모든 수치가 지 친히 대신 예수님, 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죄 죄를 준비를 하며 죄악의 옷을 갈아입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남들 앞에서 나 자신을 높이길 좋아하고, 세상의 영광을 좇길 더 원하는 나 수직스러운 모습, 내 삶에서 말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땅의 꿈과 비전 없이 대변하고 사느라 십자가는 마음속 구석 구석 다량한 어둠에 처박아둔 채 고단한 모습, 나는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인 중의 죄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증스러운 내 모습 때문에 울고, 또 그런 나를 위해 그 귀한 생명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또 울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다 결국 포기한 적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로 신실하지 못한 적이 있었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신실하신 예수님 앞에 내 더럽고 병든 몸을 끌고 나와 보혈의 공로로 씻겨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죄 짓기를 갈구하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시 116:12).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고, 나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만 노래하며,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 손 붙잡고,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명예가 아무리 주님과 관계를 끊으려 해도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고백하게 하신 주님, 그분만이 충분합니다.

성경공(대학부)



저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론 리옹이요. 충천교회 선교팀으로부터 복음을 처음 접했지요. 이후 저는 충천교회에서 보내주시는 말씀을 이메일을 통해서 받으며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말씀을 받아볼 때마다 항상 기쁘고 생명의 복음을 그때그때마다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현재 이 복음을 저뿐만 아니라 저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믿지 않는 캄보디아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둘째, 우리 학생들 중 몇 명이 건강이 좋지 않는데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셋째, 캄보디아는 물가도 비싸고 모든 생활 환경이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넷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주님 되셔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복음을 듣기를 희망하여 연락자를 불러 온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주일영성분포를 매우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다. 위의 글은 최근 캄보디아에 있는 론 리옹 형제로부터 온 편지이다.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0일(화) - 5월 18일(수)	4교구 1팀	정봉성
5월 11일(수) - 5월 19일(목)	11교구 2팀	김복수
5월 11일(수) - 5월 19일(목)	21교구 1팀	함진옥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일(월) - 5월 9일(일)	19교구 2팀	김학희
5월 2일(월) - 5월 10일(화)	5교구 1팀	최동식
5월 2일(월) - 5월 10일(화)	7교구 1팀	이근우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4월 25일(일) - 5월 3일(화)	6교구 1팀	김정배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어린 아이처럼

“우리 가정에 임한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께 가르쳐주고 싶어요.”

(유하나 가정)

“한국인 엄마를 둔 아이에게 한국식 부활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시안 가정)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7)

안녕!

너희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처음

쓰는 편지인 것 같네. 이렇게 편

지를 쓰는 것도 또 우리 초은이, 새힘이,

서영이, 수민이, 태중이, 수인이와 진우를

만나게 된 것도 주님의 계획하심인 것 같아.

선생님은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 우리 친구들이 한주간 동안 무엇을 하여 지냈는지? 아픈 곳은 없었는지? 밥은 잘 먹고 지냈는지? 너희들에 대한 궁금증을 한가득 안고 만나기를 기대한다. 너희들에 대한 궁금증은 아마 너희들을 계획하신 주님이 선생님보다 더 크게 가지고 계실거야.

너희들과 예배실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리지만 순수한 마음이 보여서 너무나 기쁘다. 작지만 힘이 넘치는 손짓과 예쁜 목소리로 율동과 찬양을 하고 전도사님의 말씀에 좋! 좋!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듣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실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거 알고 있지!

지은진(교사, 유아부)

Q. 교회에 오는 것이 좋은가요?

• 오늘 교회에 처음 왔어요. 처음에는 떨렸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6층에 옥상도 있어서 좋아요. 오늘 친구랑 같이 교회 오려고 알람 맞춰 놓고 왔는데 알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안서연, 초등1부)

•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유진, 초등2부)

•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요한, 초등2부)

•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니깐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안재철, 초등2부)

• 예수님을 만나서 좋아요. (임세연, 유치부)

• 예배 드려서 좋아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리니까 좋아요. (최민정, 유치부)

Q. 찬양대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 평소에도 찬양을 부르는데 주일에는 찬양대를 하면서 더 많이 찬양을 부를 수 있으니까 좋아요. (김은예, 초등2부)

• 찬양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안재철, 초등2부)

• 노래하는 게 좋아요. (김예림, 초등1부)

•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이유진, 초등1부)

Q.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좋은가요?

• 바이올린으로 음이 많이 낼 수 있어서 좋아요. 사실 가사를 안 외워서 좋기도 하고요. (이희태, 초등2부)

• 바이올린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강유나, 초등2부)

Q.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가요?

• 닌텐도 Wii 스포츠 받고 싶어요. 운동도 하고 힘 좀 기르고 싶어요. (안서연, 초등1부)

• 예쁜 필통 받고 싶어요. 집에 필통이 많은데 다 낡고 긴 연필도 잘 안 들어가서요. (안재철, 초등2부)

• 귀여운 강아지요. (임세연, 유치부)

• 엄마의 품이요. 엄마가 중요니까요. (이유진, 초등1부)

• 예쁜 인형 받고 싶어요. (김영아, 유치부)

• 찬송가요. 예수님한테 더 많이 찬양드릴 수 있으니까요. (안재철, 초등1부)

• 지금보다 조금 더 큰 바이올린을 받고 싶어요. (이희태, 초등2부)

• 플루트요. 플루트 연주하는 법을 배워서 다른 악기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강유나, 초등2부)

탁아부는 오케스트라



Q. 탁아부는 어떤 곳인가요?

부모님들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듯, 내 아이를 돌보듯 온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지요.

Q.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탁아부는 수요일(10:30~12:00), 금요일(오후 6:00~9:00), 주일(8:30~오후 6:00)에 운영되는 데 주일에는 2,3,4부예배를 기준해 총 3과로 나뉘어서 운영돼요. 1과는 8:30~10:30, 2과는 10:30~12:30, 3과는 12:30~2:00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 교구모임 전까지 운영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녁예배 시간인 오후 5~6시에도 운영되고 있어요. 예배는 주로 찬양과 율동, 그림, 만들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부모님들은 반드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 주세요.

Q. 탁아부는 교회목표 중 하나인 천국일꾼 양성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탁아부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맡아서 자식처럼 여기며 가르치고, 기도하며 양육해요. 탁아부에서부터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로 올라가며 천국일꾼으로 양육되는 거라 생각해요.



Q. 탁아부만의 장점이 있다면?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자유로운 분위기와 아이들이 집과 같이 어지고 편하게 지내요. 공간이 넓어서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갓나가기부터 5세 의 어린 아이까지 모두 있는 공간이라 보니 서로 돌보고 어울리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각 부서의 예배가 끝나면 큰아이들이 와서 동생들 돌보고 친교를 나누는 장소이기도 하구요.

Q. 탁아부를 만 마리로 정의에 표현해 본다면?

'탁아부는 오케스트라다.' 각 악기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어우러지듯, 아이들의 예쁜 소리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시어머님께

어머님, 안녕하세요.

머리니 향이에요. 2011년 어버이주일에는 자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작년, 결혼을 통해 인생의 반차와 함께 믿음의 기쁨을 얻었고 또 새로운 부모님과 가족들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어버이주일이에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삶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어머님이 한 가족이 된 것은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었지요? 많은 이들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려워하지만 저는 한국 정서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고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어머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실을 지키며 밤낮없이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런 어머님의 삶을 볼 때면 저도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예전엔 제가 마음이 힘들고 슬플 때 어머님께서 먼저 알고 기도해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이 기억나요. 어머님,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 임마쳐님, 때로는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게 다기와 주상에 감사드리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더 힘써 나아가도록 계속 그 자리에서 도전해 주세요. 또한 어머님의 중보 기도의 열매인 남편을 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헌신한 여인이 되려고 다짐하기도 하고요.

시댁 어른들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신 분들이 있지만, 주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0). 아직 믿지 않는 이는 가족들과 모여서 예수님 아바기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면, 그분들의 마음 발이 참 순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때에 선하게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길 기도해야겠지요. 어버이주일, 무엇보다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기쁨과 평안이 어머님과 아바님,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님! 매주일마다 멀리서 맛있는 빵도 선물도 무건고 감사하고 항상 신장케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믿음 가까이하고, 기도하는 머리로 뭉개고!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한 주일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영문 머리니 향이 올림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중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075	유인준	영아부	3	출생	2102	신소연	초등1부	7	문 회
2076	윤서진	영아부	10	출생	2103	유윤기	중등부	14	정원임
2077	윤서진	영아부	10	출생	2104	김주은	고등부	10	순경희
2078	박은우	영아부	1	출생	2105	이승환	중등부	3	김정화
2079	박기태	양육반	23	출생	2106	박치원	중등부	3	박만남
2080	이윤옥		17	윤정희B	2107	이민영	중등부	3	조예진
2081	김경호		14	박민국	2108	김정민	양육반	18	김영문
2082	강정현		1	고영희	2109	박미정	양육반	18	윤정영
2083	김지혜		1		2110	전현하	중등부	13	김영희
2084	조승진	영아부	1		2111	김재진	양육반	12	신순호
2085	최승진	초등2부	2	김옥주	2112	이민선	양육반	16	서석수
2086	김지미	양육반	7	김숙지C	2113	박지은	양육반	17	이지형
2087	안철현	양육반	18	정윤슬	2114	송수진	유아부	17	이정민
2088	노지수	중등부	2	송은하	2115	유새롬	양육반	5	윤옥희
2089	김이영	중등부	14	임예랑	2116	이주영	초등2부	24	이숙희A
2090	정예나	양육반	1	이소규	2117	박지호	양육반	2	최석수
2091	민유진	중등부	13	박민백	2118	김희경	양육반	2	심인순
2092	황유진		18	전진실	2119	원원주	양육반	8	안성훈
2093	주정현	양육반	22	서수진	2120	이성준	중등부	13	장금자
2094	김정민	양육반	21	김지은	2121	박숙수		2	안복호
2095	김태연	양육반	12	김성자	2122	이은성	초등1부	10	한정아
2096	정여진	양육반	6	전민태	2123	최민준		19	정준주
2097	전현희		20	최희태	2124	신동진		10	최태순
2098	윤준준	양육반	9	김영연	2125	황은정	양육반	14	전상현
2099	정승진	양육반	4	이성숙	2126	김정현	초등2부	13	황효선
2100	정국주		6		2127	이혜은		10	김영록
2101	신윤정	초등1부	7	정연택					

교회소식

별 세

- Copyright © 2011 泰成印刷 | Published by Chongsheng Church Press